

◎성 김대건 안드레아 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강론

순교자 성월인 9월이 무르익어가는 오늘은 하느님
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을
기리는 대축제의 날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은 최초로 한국인 사제가 되신 분으로 26살에 돌
아가셨고,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박해시대 때 신
부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복사도 하고 길 안내도
했던 훌륭한 평신도로서 45살 나이에 돌아가셨습
니다. 오늘은 이 분들과 1만여 명 동료 순교자들
을 기념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뿌리를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선교사들이
앞장을 서지만 우리나라에는 먼저 천주교 관련 서
적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을 왕래하던 사람들 틈에
마테오 리치 신부가 중국인들을 위해 예비신자 교
리서로 쓴 「천주실의」라는 책이 들어왔고, 당시
내로라 하는 학자들은 이 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천진암 '주어사'에 모여 강학회를 열게 됩니다.

천주학은 공부를 할수록 이들에게 놀라운 세계
를 제시해 주었고 새로운 우주관, 신관, 인간관을
접하면서 이들은 점점 천주학에 매료되기 시작합
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부할 책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마침 그들과 함께 했던 '이승훈'이라는 사람
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는 그라몽 신부를 찾
아가 천주교에 관련된 지식과 신앙을 배우고 한국
천주교의 반석이 되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관한 많은
서적을 가지고 1784년 봄에 귀국을 했고 이제 학
자들의 모임은 천진암에서 지금의 명동 성당 자리
인 김범우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명례방'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합니다. 당시 유명한 학자들이었던
이벽, 권일신, 정약전 형제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천주
학은 이들을 사로잡아 이제 학문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자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학자들은

교리 연구에 더욱 노력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의문
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또 한 가
지가 바로 제사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
으로 남았습니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그들은 북
경에 있는 주교에게 문의를 하기로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주교는 두 가지 모두 안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
니다. 이에 순종한 신자들은 이제까지 행했던 '가
성직제도'를 폐지하고 성직자의 파견을 애타게 요
청함과 동시에 조상제사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됩
니다. 이런 와중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
건이 전라도 진산에서 발생합니다.

윤지충과 권상연 형제가 제사를 지내려고 온 가
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 뜻에 어긋난다며
신주를 불살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천주교를 엄격
히 금지하게 되고,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
를 거부한 이들 형제는 대역 죄인이 되어 귀향을
가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남녀노소가 평
등하다고 주장하는 천주교를 나라의 기강을 흔드
는 사학으로 규정해 대역죄로 엄하게 다스려 뿌리
뽑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1791년 신해년에 처음으로 박해가 일어나 이승
훈, 권일신이 귀향을 가고 죽게 되면서 100여 년
간의 박해동안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처형당하는
아픔을 겪고서야 마침내 1886년 한불통상조약의
체결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189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약현성당이 들어서고 이승훈 베
드로 한 명으로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는 지금 500
만 명이 넘는 신자수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참
으로 놀라운 한국 천주교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자 수
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죽음을 넘어서신 신앙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비신자

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이의 칼
날 아래에서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순교자들
의 모습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
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
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
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

오늘 복음 말씀대로 순교자들은 교회의 초석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고, 목숨을 잃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순교자들의 목숨을
넘어선 신앙이 우리 신앙으로 뿌리내리길 기원합
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 오륜동본당 주임)

‘그 사람’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서도 아니고,
근사한 선물을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그 사람’ 자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장점만 있어서도 아닙니
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연이면서 필연같은
동반자!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 준 ‘그 사람’!
그래서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할 뿐입니다.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9월 순교 성월 기도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보듬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바뇌기도회
10월 3일 오후 7:30 / 박순웅 형제집

●성모회 야유회 (접수중)
일시 : 9월 29일(토)
장소 : 환상의 조지안 베이 관광
모집인원 : 46명(선착순)
참가비 : \$50 (식사및 행사일체)
문의 :이정숙 자매(성모 총무)

●9월 구역모임
▶2구역: 9/23(일) 미사후 장소 추후공고
▶3구역: 9/28(금) 오후 6시, 박용대형제집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 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오늘은 성전건립 헌금 내는 날입니다)

● 통신교리 모집 안내 (5차)
세례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선교부장 (박재영 바오로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9월25일(화) 오후 8시, 추석 위령미사
▶9월27일(목) 낮 12시, 성 빈첸시오 사제기념
▶9월27일(목) 오후 8시, 성 빈첸시오 사제기념

● 추석 위령미사 안내
오는 9월 25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해서 위령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돌아가신 가족,친지 조상님들을 기리며 함께 미사봉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구역장님께 신청하여 주십시오.

●케백 성지순례 4박 5일
몬트리올과 케벡의 성지를 돌며 알곤퀸 단풍관광과 오타와를 돌아오는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10명(밴쿠버 신자들과 합류)
마감 : 9월 30일
연락처: 오정호 프란치스코 905-949-6654

●예수성심성당과 친선축구시합
일시: 10월 14일
장소: 헤밀턴 한인성당
연습경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게 되고,
당신이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한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2007-38 2007. 9. 23.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레
해 설 |이우원 차주 해설 박인선

화 답 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 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인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87) 성안드레아 김대건신부노래
봉 헌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 체 (164) 떡과 술의 형상에
되 장 (29) 주 예수 따르기로

독 서

9월 23일 고덕근 고세형
9월 30일 이우원 이희진
10월 7일 김근효 김순희
10월14일 박재영 박경미

봉 헌

9월 23일 김용하 김희선
9월 30일 고덕근 고세형
10월 7일 이우원 이희진
10월14일 김근효 김순희

2007년 9월16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47.50
성전건립:	\$ 5.00
Total:	\$ 652.50